2017 국가직 9급 기출문제 해설(㉯책형)

과목 : 한국사

해설 : 이명호 교수(아모르이그잼 학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오늘 시험에 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카페나 SNS에 과목별로 '어렵다, 쉽다'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저는 세상에 '쉬운 시험'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쉬운 것이지, 절대적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분들이나 그 시험의 성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리고 '오직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단 한 문제만 어려워도 그 시험은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 됩니다. 함부로 '평이하였다'고 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험 앞에서 겸허한 태도를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험을 치른 분들과 앞으로 시험을 계속 치러야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시험의 '한국사' 과목에 대한 저의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나? (총 20문항)>

구분	시대 상세	출제된 내용	자료 제시
고대	삼국	고구려 왕의 업적(미천왕~장수왕)	○
	초기 국가	동예의 풍속과 군장의 명칭	○
	통일신라	6두품의 특징	○
중세	고려	우왕의 업적(화통도감, 직지심체요절)	○
	고려	고려 경제의 특징(관영상점)	○
	고려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	○
	고려	의주 지역의 역사	×
근세	조선 전기	오가작통법의 시행 목적	○
	조선 전기	정도전의 저술	○
	조선 후기	예송 논쟁	×
	조선 후기	조선 후기 광업, 농업, 상업의 특징	○
	조선 후기	홍대용의 저서와 주장	○
근대	개항·개화기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	×
	대한제국	헌의 6조 발표 이후 사건	○
	대한제국	군대해산 이후 상황	○
	대한제국	'국권 피탈 과정'의 순서	○
	일제강점기	국민대표회의	○
	일제강점기	하와이 이주 역사	○
	일제강점기	손진태의 사관 및 활동	○
현대	-	-	-
종합	조선~일제강점기	'독도는 우리 땅'의 증거	×

<특징>

1. 네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료 제시형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손진태' 문제의 경우, '계급 투쟁'을 말하면서도 '민족사'를 더욱 강조하는 <자료>를 보면서 "신민족주의 사관"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조선민족사 개론'이라는 출처를 보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제강점기라면 '손진태'가 이어서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는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높은 비중으로 출제될 것입니다. 기출문제의 사료 이외에도 다양한 '출제 가능한 사료'를 접하면서, 좋은 교수님들의 도움을 얻어 자료를 해석하는 힘을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2. 일제강점기 문제 3문항 및 '독도' 문제를 포함한다면 근대사 관련 문제가 총 8문항이었습니다. 20문항 중 8문항이면, 기존의 다른 시험에서 근현대사가 출제되었던 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이번 시험에서는 '광복 이후' 현대사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국의 혼란함을 고려한 것인지, 출제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1문항 이상은 꼭 출제되었던 현대사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의 시험 경향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 질문에 '시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제가 5문항이었습니다. (어떤 사건) '이후'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제가 3문항, (어떤) '왕대(王代)'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제가 1문항이었습니다. 거의 반 정도의 문제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時期)를 물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를 할 때, 보다 상세하게 제작된 연표를 통해 정확한 연도와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견>

이번 시험에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를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라는 동일한 문구로 이미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 시험에 '국권이 침탈(피탈, 강탈)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동일한 질문이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홍대용을 물었던 '다음과 같이 주장한 실학자'라는 질문도 이미 그 질문의 표현까지도 동일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출문제를 연구할 때, 그 '답' 뿐만이 아니라 '질문의 형태'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한국사 9급(㉮책형)

1. ㉠과 ㉡ 두 인물의 공통된 신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 은(는)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통하여 조언하였다. • ㉡ 은(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①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다.
② 자색(紫色)의 공복을 착용하였다.
③ 중앙 관부의 최고 책임자를 독점하였다.
④ 관등 승진에서 중위제(重位制)를 적용받았다.

1. 정답 ④
'㉠ 설총'은 풍간의 뜻을 품은 「화왕계(花王戒)」를 지어 바쳐, 국왕의 유교적 도덕 정치와 향락 배격을 강조하였다. 설총은 원효의 아들로 '6두품' 출신이다. '㉡ 최치원'은 당에서 귀국한 후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최치원은 신라 하대의 '6두품' 출신이다. '6두품 이하의 신분층'은 관등 승진에서 중위제(重位制)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중위'란 중층적 위계를 줄인 말로, 6두품 이하의 신분층이 같은 두품 내에서 여러 단계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 특진 제도를 말한다. 예들 들면, 6두품의 승진 상한은 아찬이지만, 아찬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4중(四重) 아찬까지 오를 수 있었다.
① 신라 상대까지 '성골'이 왕이 되었으며, 중대부터 '진골' 귀족도 왕이 될 수 있었다.
② 자색(紫色)의 공복은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진찬, 대아찬에 해당하는 관료가 입을 수 있었다. 이 관등에 오를 수 있는 이들은 모두 진골 귀족이었다.
③ 중앙 관부의 최고 책임자, 즉 장관이 될 수 있는 자들도 모두 진골 귀족이었다.

2. (가)~(다)는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낙랑군을 차지하여 한반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 _____. (다)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였다.

<보 기>
ㄱ. 태학을 설립하였다. ㄴ.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ㄷ.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ㄹ.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 정답 ②

	고국천왕	ㄴ. 진대법을 도입하였다(194).
(가)	미천왕	낙랑군을 차지하여 한반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313).
(나)	소수림왕	ㄱ. 태학을 설립하였다(372).
	광개토대왕	ㄹ.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하였다(400).
(다)	장수왕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427),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였다(475).
	영류왕~보장왕	ㄷ.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631~647).

3. 다음 제도를 시행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무릇 민호(民戶)는 그 이웃과 더불어 모으되, 가족 숫자의 다과(多寡)와 재산의 빈부에 관계없이 다섯 집마다 한 통(統)을 만들고, 통 안에 한 사람을 골라서 통수(統帥)로 삼아 통 안의 일을 맡게 한다.
> • 1리(里) 마다 5통 이상에서 10통까지는 소리(小里)를 삼고, … (중략) … 리(里) 안에서 또 이정(里正)을 임명한다.
>
> - 『비변사등록』 -

<보 기>

ㄱ.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 방지
ㄴ.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인 확보
ㄷ.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 활성화
ㄹ. 향권을 둘러싼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 억제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3. 정답 ①
제시된 자료는 조선 세조 때부터 실시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에 관한 『비변사등록』의 기사이다. 조선 정부는 5호(戶)를 하나의 통(統)으로 편성하고, 5개의 통을 1개의 리(里)로, 3~4개의 리를 1개의 면(面)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편재한 이유는 농민들의 향촌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호패법'의 목적과도 같다. 또한 오가작통법은 호(戶)의 다과를 명확히 파악하여 부세와 군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행되었다.

4. 다음 발의로 개최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현시키고 상하이 일대의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제창하고 있다. …(중략)… 근본적 대해결로써 통일적 재조를 꾀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함에는 다만 민의뿐이므로 이에 ㉠의 소집을 제창한다.

① 창조파와 개조파 등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② 한국국민당을 통한 정당정치 실시가 결정되었다.
③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이 채택되었다.
④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4. 정답 ①
㉠은 '통일적 재조를 꾀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한' 국민대표회의(1923)이다. 1923년 초 상하이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국내외 독립운동가 130여 명이 참여하여 약 4개월 정도 계속되었다. 동일한 사료가 2011년 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다. 당시 수능에서의 답은 '국내 외 독립 운동 단체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와 '독립 운동의 방략을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었다'였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립' 문제를 정답으로 하고 있다. 국민대표회의에서는 신채호 등의 창조파와 안창호 등의 개조파가 서로 대립하였다.

5.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라)	
	연산군 즉위	중종 즉위	효종 즉위	영조 즉위	정조 즉위

① (가) -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② (나) -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③ (다) - 두 차례에 걸친 예송이 일어났다.
④ (라) - 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5. 정답 ③

	(가)	(나)	(다)	(라)	
	무오사화 (1498) 갑자사화 (1504)	현량과 실시 (1519)	기해예송 (1659) 갑인예송 (1674)		신해통공 (1791)
	연산군 즉위 (1494)	중종 즉위 (1506)	효종 즉위 (1649)	영조 즉위 (1724)	정조 즉위 (1776)

6.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神)으로 여겨 제사지낸다. 읍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① 후·읍군·삼로 등이 하호를 통치하였다.
② 국읍마다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있었다.
③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한 다음 뼈만 추려 목곽에 안치하였다.
④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6. 정답 ①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고, ‘책화’의 제도가 있었던 나라는 ‘동예’이다. 동예에는 대군장이 없었으며, 후·읍군·삼로의 관직이 있어서 하호를 통치하였다.
② 삼한, ③ 옥저, ④ 삼한(편두 풍속).

7. 다음 건의문이 결의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①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② 황제권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③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④ 서재필을 중심으로 민중 계몽을 위한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7. 정답 ②
제시된 자료는 독립협회가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발표된 ‘헌의 6조’이다(1898). 즉 ‘다음 건의문이 결의된 이후’란 1898년 이후이다. 대한제국이 황제권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원수부를 설치한 때는 1899년이므로, 이 문제의 답이 된다.
① 군국기무처는 1894년에 설치되었다.
③ 아관파천은 1896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④ 독립신문은 1896년에 창간되었다.

8. 밑줄 친 ‘이 기구’가 설치된 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정은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 이 기구를 두고, 대장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하였으며,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① 복원궁을 건립하여 도교를 부흥시켰다.
②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다.
③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④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정치를 구현하였다.

8. 정답 ②
‘우왕 때’ 최무선의 건의로 화약 및 화기의 제조를 담당하는 관청인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다(1377). 같은 해에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1377).
① 복원궁을 건립한 왕은 ‘예종’이다.
③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속장경을 간행한 왕은 ‘숙종’이다.
④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인 왕은 ‘성종’이다.

9. 갑신정변 이후 국내외 정세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의 영세 중립국화를 건의하였다.
②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응하여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③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나라 상인에게 통상 특혜를 허용하였다.
④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톈진조약이 체결되었다.

9. 정답 ③
'갑신정변 이후 국내외 정세'란 갑신정변(1884)이 진압된 직후인 1885년 및 그 이후의 일을 말한다. ① 독일 부영사 부들러가 조선의 영세 중립국화를 건의한 때도, ②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때도, ④ 톈진조약이 체결된 때도, 모두 1885년이다.
③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은 임오군란 후 체결되었다(1882). 갑신정변 이전의 사건이다.

10.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이범윤의 보고문 – 은주시청합기
②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삼국접양지도
③ 미쓰야 협정 –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④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 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임명장

10. 정답 ②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는 은주시청합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삼국접양지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이다.
②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따라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다(1900).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는 일본인이 조선, 류큐, 하이국(홋카이도)을 그린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다(1785).
① 이범윤은 북간도에 간도관리사로 파견되었다(1903). 그러므로 이범윤의 보고문은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증거이다. / 1677년 간행된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문헌 「은주시청합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③ 미쓰야 협정은 조선 총독부 경무 국장과 둥산성의 지배자 장쭤린이 체결한 협약이다. 만주의 한국인 독립운동자를 체포하여 일본 영사관에 넘기면 상금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협약으로 '영토 문제'와는 거리가 멀고, 특히 관련된 지역은 독도가 아니라 간도 지역이다. / 일제는 러일 전쟁 도발 후에 군사적으로 한국을 점령하고, 시마네 현의 고시 제40호에 의하여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였다(1905. 2).
④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탐한 기록인데(1870), 메이지 정부 최고 기관인 태정관의 지령으로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 경략사(經略使)는 1882년부터 1884년까지 서북 지역(평안도, 함경도)의 국경 문제 및 지방관 행정 감독을 위해 일시적으로 두었던 관직이다. 1882년 10월 어윤중이 서북경략사로 임명되었는데, 이것은 한반도 서북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폐가 사용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 초기에는 은 1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들었는데 그 가치는 포목 100필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 주로 외국과의 교역에 사용되었으며 후에 은의 조달이 힘들어지고 동을 혼합한 위조가 성행하자, 크기를 축소한 소은병을 만들었다.

①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② 책, 차 등을 파는 관영상점을 두었다.
③ 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하였다.
④ 청해진이 설치되어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11. 정답 ②
제시된 자료에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든 화폐는 '은병'으로, 조선 숙종 때 제작되었다. 문제에서 '이 화폐가 사용된 시기'란 좁게 보면 '고려 숙종 때'이고 넓게 보면 '고려 시대'이다. 고려 시대 경제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관영상점의 운영'이다. 고려 시대에는 개경.서경.동경 등의 대도시에 서적점, 약점,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국영점포)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①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조선 후기'이다.
③ 동시전이 설치된 시기는 지증왕 때이므로 '삼국 시대'이다.
④ 청해진이 설치된 시기는 흥덕왕 때이므로 '통일신라 시대'이다.

1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그는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되었으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관료정치를 주창하였다. 그리고 『불씨잡변』을 저술하여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비판하였다.

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② 백성들의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③ 여진족을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6진을 개척하였다.
④ 「조선경국전」을 편찬하여 왕조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12. 정답 ④
'이성계를 추대'한 조선 왕조 개창의 '1등 공신'이고,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를 주장하였으며, 『불씨잡변』을 저술한 인물은 정도전(1342~1398)이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을 편찬하여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① 조선 세종 때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한 인물은 '이종무'이다.
② 조선 세종 때 「삼강행실도」를 편찬한 인물은 '설순' 등이다.
③ 조선 세종 때 6진을 개척한 인물은 '김종서'이다.

13. 밑줄 친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 1903년에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하였다. 이주 노동자들은 사탕수수 농장, 개간 사업장, 철도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한인 사회를 형성하여 갔다. 노동 이민과 함께 사진 결혼에 의한 부녀자들의 이민도 이루어졌다. 또한 한인합성협회 등과 같은 한인 단체가 결성되었다.

①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이 건설되었다.
②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되었다.
③ 자치 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④ 군사 양성 기관인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13. 정답 ④
1903년에 공식적인 이민이 시작된 지역은 '미주 지역'이다. 미주 지역 이민 초기에는 '하와이' 사탕 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갔다. 한인합성협회(韓人合成協會)는 1907년에 '하와이'에서 결성된 항일단체이다. 바로 '이곳' 하와이에서 박용만 등이 중심이 되어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는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였다(1914).
① 한흥동은 러시아와 중국의 접경 지대인 '밀산부'에 건설한 독립운동 기지였다.
② 권업회(1911)가 조직된 지역은 '연해주'이다.
③ 경학사(1911)와 부민단(1912)이 조직된 지역은 '서간도'이다.

14. 다음과 같이 주장한 조선후기의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건대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半徑)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몇 천만 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물며 은하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

① 『북학의』에서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촉진하자고 주장하였다.
② 『임하경륜』에서 성인 남자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고 주장하였다.
③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재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④ 『우서』에서 상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정답 ②
지전설을 주장하여 화이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내세운 인물은 홍대용(1731~1783)이다. 『임하경륜』은 홍대용의 대표적인 저서이며, 이 책에서 홍대용은 균전제(均田制)를 주장했다. 홍대용이 주장한 균전제는 성인 남자들에게 2결의 토지를 지급하고, 병농일치의 군대를 조직하자는 것이었다.
① 『북학의』에서 소비론을 주장한 인물은 '박제가'이다.
③ 『반계수록』에서 균전론을 주장한 인물은 '유형원'이다.
④ 『우서』에서 농업의 상업적 경영을 주장한 인물은 '유수원'이다.

15. 다음 조칙이 발표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관보≫ 호외
짐이 생각건대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이용후생에 응용함이 급무라. 현재 군대는 용병으로서 상하의 일치와 국가 안전을 지키는 방위에 부족한지라. 훗날 징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할 때까지 황실시위에 필요한 자를 빼고 모두 일시에 해산하노라.

<보 기>
ㄱ.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ㄴ. 단발령의 실시로 위정척사 사상에 바탕을 둔 의병 운동이 시작되었다.
ㄷ. 연합 의병 부대인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ㄹ.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 부대의 근거지가 초토화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5. 정답 ④
제시된 '조칙'이란 정미 7조약(1907)의 부속 밀약으로 교환된 '한일협약 규정 실행에 관한 각서'의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차후에 '징병법'을 발표하여 새로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이전의 군대를 해산시킨다는 취지의 발표이다. '군대 해산'이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하였다. 여기에 고종의 강제 퇴위 소식이 더해져, 정미의병(1907)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미의병의 연장선상에서 서울 진공 작전(1908)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미의병 이후 일제는 소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 하여 국내에 남아 있는 의병 세력을 완전히 진압하는 군사작전을 펼쳤다(1909).
ㄱ. 평민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한 의병은 을사의병(1905)이다.
ㄴ. 단발령의 실시가 원인이 된 의병은 을미의병(1895)이다.

16. 국권이 침탈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ㄴ. 일본인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ㄷ.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장악하였다.
ㄹ.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① ㄱ→ㄴ→ㄷ→ㄹ
② ㄴ→ㄱ→ㄹ→ㄷ
③ ㄴ→ㄷ→ㄱ→ㄹ
④ ㄹ→ㄴ→ㄱ→ㄷ

16. 정답 ②
ㄴ. "일본인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제1차 한일협약의 체결(1904)을 의미한다.

ㄱ.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 시킨 때는 1907년 7월 20일이다.
ㄹ.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통감의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뜻으로 정미 7조약(한일 신협약, 1907)의 체결을 의미한다. 정미 7조약은 고종을 퇴위시킨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순종 즉위 4일째 되는 날(1907년 7월 24일)에 강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이다.
ㄷ.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장악하였다.”는 것은 기유각서의 체결(1909)을 의미한다.

17. 다음의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수안군에는 본래 금광이 다섯 곳이 있었다. 올해 여름에 새로 39개소의 금혈을 뚫었는데, 550여 명의 광꾼들이 모여들었다. 도내의 무뢰배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투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이익을 좇는 무리들도 소문을 듣고 몰려온다. …(중략)… 금점을 설치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된 곳에는 촌락이 즐비하고 상인들이 물품을 유통시켜 큰 도회지를 이루고 있다.

①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보급되었다.
② 면화, 담배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다.
③ 일부 지방에서 도조법으로 지대를 납부하였다.
④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사패전을 부농층에 분급하였다.

17. 정답 ④
조선 후기에는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증대하였고, 상업 자본 유입으로 ‘금광 개발’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에는 개인의 채굴권을 허용하되, 금점(金店)을 설치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① 견종법이 보급되었고, ②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③ 일부 지방에서 도조법으로 지대를 납부하였다.
④ 사패(賜牌)란 임금이 내린 교지를 말하며, 사패전(賜牌田)은 그 사패에 따라서 신하 등에게 주어지는 토지이다. 사패전이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어지면 정상적일 수 있으나, 사패전은 고려 원간섭기 때 권문세족이 농장을 불법적으로 늘려가는 방법 중의 하나였다. 권문세족들은 민전을 한지(閑地)라고 속여 문서를 위조하고 국왕의 사패(賜牌)를 받아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사패전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고려 후기’에 어울리는 말이며, 범위를 넓힌다면 ‘조선 초기’까지도 쓸 수 있다.

18. 다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臣)들이 서경의 임원역 지세를 관찰하니, 이곳이 곧 음양가들이 말하는 매우 좋은 터입니다. 만약 궁궐을 지어서 거처하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금나라가 폐백을 가지고 와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① 서경 천도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② 문종 때 남경 설치의 배경이 되었다.
③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④ 공민왕과 우왕 때 한양 천도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18. 정답 ③
제시된 자료는 '서경길지설'을 주장하였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관련 자료이다. '지세', '음양가', '좋은 터' 등의 표현을 볼 때 이 자료에는 풍수지리 사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풍수지리 사상은 ① 고려 시대에 서경 천도 운동의 배경이 되었으며(1135), ② 문종 때 남경 길지설의 대두로 남경 설치의 배경이 되었고, ④ 공민왕과 우왕 때 한양길지설의 대두로 한양 천도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③ 초제는 '도교'의 제사 의식이다.

19.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급투쟁은 민족의 내부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민족의 내쟁은 필연적으로 민족의 약화에 따르는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수모를 초래할 것이다. 계급투쟁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민족 균등이 실현되는 날 그것은 자연 해소되는 문제다. …(중략)… 이 세계적 기운과 민족적 요청에서 민족사관은 출발하는 것이며, 민족사는 그 향로와 방법을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지시하여야 할 것이다.
>
> -『조선민족사 개론』-

①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를 저술하였다.
② 대동사상을 수용한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였다.
③ 『진단학보』를 발간한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④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

19. 정답 ③
출처인 『조선민족사 개론』은 손진태의 저서이다. 손진태는 '계급 투쟁'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 '민족사'를 강조하였다. 이것을 신민족주의라 한다. 신민족주의란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계급평등을 인정하지만, 계급평등보다는 민족단결을 더 중요시하는 사관이다. 신민족주의를 내세운 대표적인 인물은 손진태(일제강점기)와 안재홍(광복 후)이다.
③ 손진태는 이병도와 함께 『진단학보』를 발간한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①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를 저술한 인물은 '신채호'이다.
② 대동사상을 수용한 유교 구신론을 주장한 인물은 '박은식'이다.
④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한 인물은 '정인보'이다.

20. 고려시대 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천강변에 위치하며 도호부가 설치된 곳이다.
② 강동 6주 가운데 하나인 흥화진이 있던 곳이다.
③ 요(遼)와 물품을 거래하던 각장이 설치된 곳이다.
④ 요(遼)와 금(金)의 분쟁을 이용하여 회복하려고 시도한 곳이다.

20. 정답 ①
고려는 안북도호부, 안변도호부, 안서도호부 등 군사적 방비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곳을 도호부로 정하였다. 청천강변에 위치하였던 고려의 도호부는 '안북도호부(안북대도호부)'이다. 안

북도호부가 설치되었던 지역은 영주(지금의 평안남도 안주) 지역이다. '의주'는 청천강이 아니라 '압록강' 근처이다.
②, ④ 강동 6주 중 하나인 '흥화진'은 의주를 말한다. 서희는 요(遼)와 금(金)의 분쟁을 이용하여 이 지역을 회복하려고 시도하였다.
③ '각장(榷場)'이란 고려와 거란, 여진족 등 사이에 무역을 위해 설치한 장소이다. 고려 시대에 의주 지역에 요(遼)와 물품을 거래하던 각장이 설치되었다.